



GATE2 입구에 조성된 소나무



물개 테마의 놀이터.



달나라 테마의 놀이터.

/김대환 기자

“다양한 테마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추억 쌓아요”

아파트의 미학(美學)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최근 찾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남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광일초등학교와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해 보였다.

광명뉴타운 15구역에 재개발한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12개동, 총 133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은 ▲36㎡ ▲49㎡ ▲59㎡ ▲8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푸르지오’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지는 새 아파트에 걸맞게 깔

GATE2 입구에 소나무 등 설치 남향 위주… 채광·통풍 극대화 ‘푸르지오’만의 특화설계 적용 주차장 없앤 공원형 아파트 건폐율 15.63%… 동간 거리 넓혀

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했다. 게이트1(GATE1) 입구에는 소나무 숲을 느낄 수 있는 ‘힐링포레스트’가 조성돼 있었다. GATE2 입구에 위치한 소나무와 석가산은 품격 있는 경관을 뿜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4베이(Bay)와 1~2인 가구를 위한 윈스톱 특화 공간 2Bay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아파

트로 꾸며졌다.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세대 진입이 가능하며, 세대 당 1.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한 보행로도도 설치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건폐율이 15.63%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넓혀 단지 쾌적성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면서 “입주민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 광장과 테마 쉼터 등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팽나무와 놀이 공간 등이 설치된 ‘케렌시아 가든’을 비롯해 지상층에는 정원와 티하우스 등이 조성됐다. 정원 주변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게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이 조성돼 있었다. 이

밖에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독서실, 시니어클럽도 마련돼 있다.

단지에는 물개와 달나라, 숲 등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었다. 물개 테마의 놀이터에는 수경시설이 만들어져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모습도 보여줬다. 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나무를 심는 등 ‘수생비오톱’이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에겐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광명시는 지난 10월 26일 광명 제15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과 어린이집 시설 인수,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숲 테마의 놀이터



단지 내 조성된 ‘수생 비오톱’



GATE1 입구에 조성된 ‘힐링포레스트’



▲환호성 꺼뜨린 총성… ‘탈락’ 환호 이란男, 군경 총에 사망
▲바이든, 보스턴에서 엇윌리엄 부부 만난 /사진 뉴시스

▲KDI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국제 시장 혼란 가능성”
▲‘9·11 테러 주범’ 빈 라덴 아들 “나 역시 아버지의 희생자”



▲FTX 붕괴 여파로 11월 암호화폐 펀드서 26조원 유출 /사진 뉴시스
▲설리번 美안보보좌관 “IRA, 한미 원전토록 논의…핵확장 억제력 강화”